P-80

혈액투석환자에서 Ganciclovir로 치료된 CMV Colitis 및 CMV Encephalitis

건국대학교병원 신장내과[1], 소화기내과[2]

최혜진[1] · 이초이[1] · 김범성[1] · 장윤미[1] · 박정환[1] · 이종호[1] · 김정환[2] · 조영일[1]

CMV Colitis and Encephalitis Successfully Treated with Ganciclovir in a Hemodialysis Patient

Hae-Jin Choi[1], CY Lee[1], BS Kim[1], YM Jang[1], JH Park[1], JH Lee[1], JH Kim[2] and Young-Il Jo[1]

Department of Nephrology[1], Gastroenterology[2], Konkuk University Hospital

거대세포바이러스 (CMV) 감염증은 대부분 면역력이 억제된 환자에서 발생하며, 55세 이상 환자에서의 사망률은 약 32% 정도로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저자들은 혈액투석중인 환자에서 발생한 CMV colitis 및 CMV enecephalitis를 ganciclovir로 치료한 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.

증 례 : 당뇨병에 의한 ESRD로 투석 중에 심한 괴사성 족부궤양이 발생하여 하지 절단술을 시행 후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던 60세 여자 환자에서 복통, 의식 혼미 및 심한 혈변이 나타났다. 혈압은 150/60 mmHg, 맥박은 77회/분, 호흡수는 20회/분, 체온은 37.0℃였다. 말초혈액검사에서 백혈구 2^4,270/mm^3, 헤모글로빈 10.1 g/dL, 혈소판 8^4,000/mm3이었고, 생화학검사에서 Cr 3.9 mg/dL, hs- CRP 8.57 mg/dL였다. Brain MRI에서는 뇌실 주위의 조영 증강 (periventricular enhacement) 소견이 있었다. Sigmoidoscopy에서는 직장에 pseudomembrane과 심한 궤양이 관찰되었고 C. difficile toxin이 양성으로 나와 pseudomembranous colitis로 진단하고 vancomycin을 투여하였으나 환자의 증상은 큰 호전이 없었다. 그런데, 직장 조직 및 혈액에서 시행한 CMV PCR 검사 및 CMV 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ganciclovir (0.625 mg/kg)를 정맥으로 투여하였다. Ganciclovir 치료를 시작하자 혈변이 점점 호전되었고 의식도 명료해지기 시작하였다. 3주 동안 ganciclovir를 투여한 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CMV PCR 및 항원검사가 음성으로 나타나 ganciclovir 투여를 중단하였다. Ganciclovir 치료 종료 후에 시행한 sigmoidoscopy에서 궤양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으나 처음보다는 현저하게 호전된 소견을 보였다. 치료를 종료한지 2주째인 현재 백혈구 6,590/mm^3, 헤모글로빈 8.6 g/dL, 혈소판 82,000/mm^3, Cr 3.3 mg/dL, hs- CRP 0.82 mg/dL이며, 혈변은 현저하게 줄었고 의식은 명료한 상태로 혈액투석 치료중이다.

Key Words : 거대세포바이러스, 혈액투석, 갠싸이클로버
Cytomegalovirus, Hemodialysis, Ganciclovir